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산 속에 위치해있어 시내로 나가려면 SLC입구에서 지나가는 FB를 기다리거나 콜택시를 불러야합니다. 기숙사는 3인 1실로 이용하며 실내에서는 삼색슬리퍼 같은 재질의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층마다 정수기가 있으며 밤에는 불빛 때문에 벌레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문을 재빨리 닫고 생활해야합니다.
수업	수업은 어학원에 도착한 뒤 시험을 보고나서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나눠 집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책과 그룹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받은 책이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첫 주에 사유를 적어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총 8교시로 진행됩니다. 각각 4번의 1:1수업과 그룹수업으로 나뉘지는데, 개인수업을 할 때는 리딩과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룹수업을 할 때는 토익 스피킹과 MMC수업 그리고 Face To Face수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수업이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진행 방법이 다르지만, 토익 스피킹의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미니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Activity	외부 Activity는 수빅투어, 요트체험, 클락 쇼핑몰과 리조트에 가는 것이 있었고 어학원 내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Activity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는데 수빅투어의 경우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에 바로 진행됩니다. 랜덤으로 그룹이 만들어져 다니기 때문에 그 때 많이 친해지면 좋고 선생님께서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시니 잘 듣고 따라다니는게 좋습니다. 요트 체험을 할 때 날씨가 좋다면 사진 찍기 정말 좋고 수영하기도 좋습니다. MMC 과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뒀다면 요트 체험 할 때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클락 쇼핑몰은 크기가 정말 커서 제대로 둘러보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현지의 쇼핑물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보고 쇼핑물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사두는 게 좋습니다. 리조트에 가면 풀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풀장 바로 뒤에 잔잔한 바닷가가 있으니 발만 담그거나 친구들과 사진 찍기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원래 동계에는 필리핀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잦았습니다. 그래도 맑은 날씨인 날이 더 많았고 햇볕이 생각보다 뜨거워서 놀랐습니다. *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어학원에서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나 그렇듯 소지품은 알아서 잘 챙겨야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다닌다면 친구 여럿과 다니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방마다 시설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방은 잔고장 같은 것 없이 잘 지냈지만 어떤 방은 시설 문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니저님들이나 버디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마다 공통적으로 세면대가 화장실 밖에 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맛있는 한식 식단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침, 점심은 학교에서 먹었고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어학원에서 시내까지 가기 위해서 주로 FB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버스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공간은 더 좁습니다. 선착순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FB가 안올 때는 콜택시를 불러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490,000	
합계	1,23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선생님들 선물은 준비하는 게 좋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기
본인에게 잘 맞는 감기약, 소화제 같은 것들은 집에서 미리 챙겨가기
동계에 가더라도 작은 우산정도는 가져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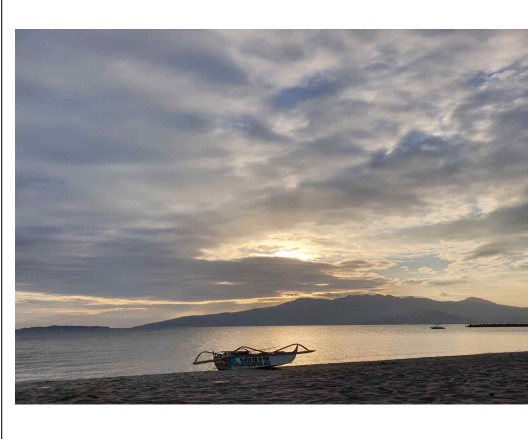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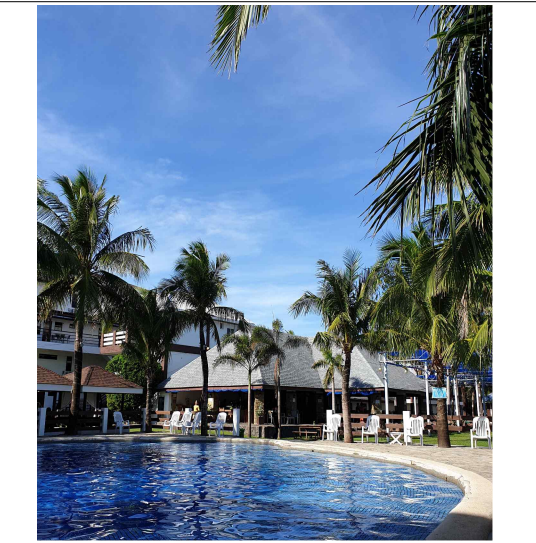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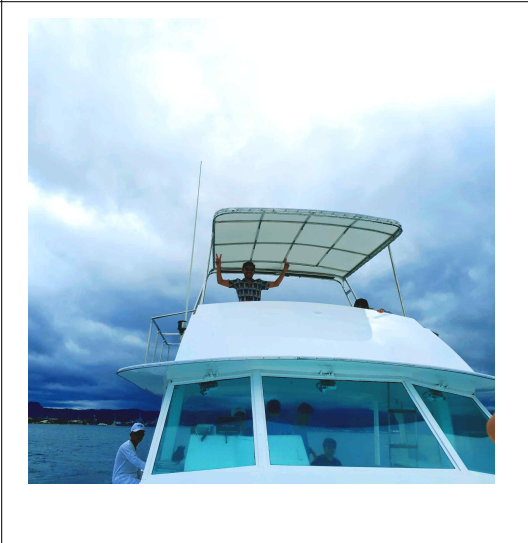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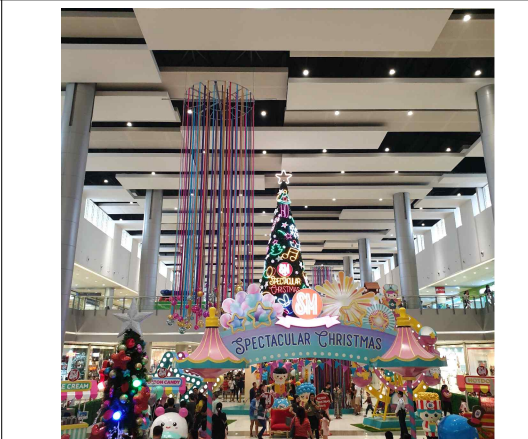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낯선 외국에서 4주를 어떻게 보내나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니 4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룹도 선생님들도 모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친해지고 하루하루가 재밌었습니다.

영어 실력의 향상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기보다는 단어와 듣기에 대한 부분이 어학연수를 오기 전보다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지가 늦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 액티비티 하루 전 늦은 밤에 공지가 올라와 매우 당황했는데 이 부분만 빼면 모든 부분이 다 생활하기 좋았고 편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체육활동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수빅베이 바닷가
	
리조트	요트체험
	
울랑가포	클락 쇼핑몰 내부